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3일 목요일 음 7월 16일 (8월)

기상정보

맑음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25℃, 낮 최고 기온은 28-30℃의 분포를 보이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80% probability for rain, clear, and high cloud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질.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09), sunset (19:50), moonrise (11:11), and moonset (23:47).

Table with 3 columns: 내일, 맑음, 23/29℃.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day and tomorrow.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야외선지수. Rows show risk levels for food poisoning (danger) and outdoor activities (normal).

월드뉴스

미 대선 예비선거 우편투표 '화약고'

100만표 지각배송 논란

미국의 올해 예비선거에서 최소 100만표의 우편투표가 '지각배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연방우체국(USPS) 내부감사 결과로, 우편투표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11월 대선에서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된 예비선거 기준으로, 우편투표 용지 가운데 최소 100만표가 '선거일 주간'에 배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거 당일까지 지역 선거관리 당국에 우편투표 용지가 회신 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우체국 감사는 "단지 적은 비율만 추적하더라도 선거일 이후에야 수백장의 우편투표 용지가 도착했고 개표에 반영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편투표 용지에 추적 가



루이 드조이 미국 연방우체국장(PG).

능 바코드가 부착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유권자 명부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자, 유권자의 옛 주소로 투표 용지가 배송되는 사례도 여럿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가 대폭 확대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지연배송 등으로 무효 처리되는 우편투표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유권자는 전체의 83%인 1억 9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주요 격전지에서는 우편투표가 승패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목요담론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성실한 농부인데,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지고 싶었다. 어느 날 땅주인과 약속을 하는데,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걸어간 만큼 땅을 가질 수 있었다.

주인공은 땅을 갖기 위해 열심히 걸어갔다. 많은 땅을 갖기 위해 걸어 가다 보니, 자신의 그림자가 길어진

원하는 것과 얻는 것

것을 보고 일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시작점에서부터 너무 멀리 가 버린 것을 인지하고,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빨리 걷다 결국에는 달리기 시작해 해가 지기 전에 겨우 시작점으로 돌아왔지만 주인공은 쓰러지고 말았다. 땅주인은 주인공에게 "장하오, 이제 저 넓은 땅은 당신 것이오"라고 말했지만 땅주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공은 숨을 거뒀다. 결국, 주인공에게 남겨진 땅은 안타깝게도 한사람이 묻힐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기하학을 하는 사람들은 원의 형태로 걸었다면 최소한으로 거리를 걸어서 최대의 면적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지 않고 걸어 확보할 수 있는 땅만 얻었다면 욕심으로 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한다. 주인공이 원했

던 적정한 땅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목표가 다를 것임에 따라 얼마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제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추진해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꾸준히 이뤄져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지도 20년이 지났다. 시작할 때의 목표와 현재를 비교해볼 시기인 것 같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표한 것이 계획한 것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초심을 잃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는 변할 수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초기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톨스토이 소설에 비유하자면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나 걸어왔던 곳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포기한다면 사회적 낭비와 제주지역의 방향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로 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지만, 목표가 명확하다면 언제가는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표가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얻는 것은 달라지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위해 오늘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변하지 않을 것임에 따라 우리 제주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자.

열린마당

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도입을 추진하며

인맥으로 일하지 않는다



오희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는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세계적인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 자체조례에 의해 그동안 세계의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으뜸이거나 모범이 되는 도시를 추구하며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다.

201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2014년도에는 2020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환경·경제·사회 3개 분야에 대한 8개 추진전략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

다. 또 매년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상반기에 자체 점검을 실시해 그 해 실행 계획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조례에 의해 추진해오고 있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법적 근거와 추진에 동력을 얻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해 세계적인 환경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도 자체조례에 의해 수립, 추진돼온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정 계획으로 상향조정해 제주의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유지 및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추진기반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 조례에 의해 세계환경수도라는 용어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이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 특례 도입이 되면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용어를 통일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재혁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중국에는 '관시(關係)'라는 독특한 인맥문화가 있다. 중국에서의 사업의 승패는 인맥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 중국의 경영이나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엄청난 실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인맥에 의해 움직였던 중국의 시스템은 부정부패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주도 하에 부정부패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생명은 품질과 청렴이라 말하며 관시를 지양하는 중국회사도 있다. 중국 온라인 식품회사 중 가장 높은 연 9000억대의 매출을 올

린 이 회사에는 독특한 사규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흔한 선물 거래를 상대업체와 할 수 없고, 사내식당을 제외한 외부에서는 업체와 식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상대 업체와는 계약이 해지되고 직원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직원들이 판시보다는 상품의 품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고객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함이다. 중국도 지금 변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가 중요한 가치로 통용되는 지금, 우리나라 역시 연고주의와 운정주의가 만연했던 결과로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을 받아왔다. 부정한 청탁을 용인하고, 소극적이고 나태한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한 조직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인맥으로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방조직은 인맥이 아닌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설 때,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운.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서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렌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말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워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 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닝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 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해피그린: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하이휴믹: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V 패스: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썰 파 고: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고펅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